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2021 5·6

“온 세상! 우리는 온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박정주 레지나.FMM

사랑하는 fmm 후원회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성으로 함께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9년 12월 나눔지 글로 인사를 드린 후에 갑작스런 아버지의 병환으로 간병을 위해 귀국하여 1년이 넘게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선교지에서 언어 공부 후 처음으로 받은 공부방 소임으로 아이들과 또 새로운 공동체 수녀님들과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 동안 폴란드의 대부분의 수녀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된 장애우들을 위한 생활 시설에서는 전국에서 봉사하러 온 수녀님들이 한 달 동안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공동체 수녀님들도 감염 되셨는데, 저는 그저 한국에서 미사 지향을 넣고, 간절히 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폴란드로 돌아가려고 계획했으나, 아픈 수녀님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폴란드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오라고 한국에서 더 머물도록 시간을 주셨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절 생각해주는 수녀님들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되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 하느님께서 혀락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올 3월 말에 폴란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마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곳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이후 저희 가족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매일 그 날 하루에 대한 감사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누군가는 간절히 살고 싶어 했을 귀한 하루임을 알게 되었지요. 저 또한 선교지에서의 시간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임을 체험했기에 매일을 귀하고 소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폴란드의 수녀님들과 이웃들과 인사를 나눌 때 마다 만세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폴란드도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족들이 있는 저의 집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폴란드에 도착한 날은 성주간 수요일 이었습니다. 책임자 수녀님이 저를 위해 자가 격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에 당연히 성삼일 전례와 부활 전례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제가 도착하는 날 방역 수칙이 바뀌어서, 폴란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놀랍게도 너무나 아름다운 폴란드의 성삼일과 부활 전례에 참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 본당에서의 부활전례는 처음이었어요. (그 동안은 큰 수녀원 공동체에서 지냈기 때문이지요.) 전례는 한마디로 한국 사람 혼자 참례하기 아까울 만큼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제 폴란드의 아름다운 전례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이 사진은 큰 성당의 한 쪽에 마련된 성 목요일 수난 감실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쓰여 있고, 하얀 천에 그려진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조배 중인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아마도 작년 연 피정 중에 고통 중인 아버지의 얼굴에서 게쎄마니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 목요일까지는 한국의 전례와 비슷했는데, 성금요일 전례는 매우 새로웠습니다. 돌아



가신 예수님의 시신 옆에 투명한 천을 덮은 성광에 성체가 현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성금요일에도 신자들은 돌아가며 밤샘 조배를 했어요. 어른들 뿐만 아니라 밤 11시에는 청소년들, 이른 아침에는 아이들이 돌아가신 예수님 곁에서 조배하며 머물렀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 시간에는 함께 하지 못 했지만,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례를 각 구역마다 정해진 시간에 바치며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형제님들이 광산 노동자이신 본당의 형제님들이 제복을 입으시고(이곳 광산 노동자 형제님들은 교회의 특별한 전례 때마다 이 제복을 입으십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꽃꽃이 서서 두 분이 30분씩 돌아가며 예수님을 지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이 형제님들이 마침 제 방 아래의 회합실에서 밤새도록 잠을 깨시기 위해 차를 마시시며 이야기하셨기에, 이분들이 저도 지켜주신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시차적응으로 힘들었는데, 시끄러운 와중에도 이 날 만큼은 풀 잣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아침에 조배하러 성당에 와 보니, 밤새 예수님을 지키셨던 형제님들 옆에 스카우트 복장을 한 10대 여학생들이 두 명씩 함께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30분 보다 더 긴 시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더군요. 한국의 학생들과 폴란드의 학생들이 얼마나 다른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느껴지시는지요? 제가 지난번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은 어른들의 신앙적인 모범 뿐 아니라 직접 본인들의 희생을 통해 신앙을 배워가더군요. 예수님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있다는 것은 저에겐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았지요.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억이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Real)임이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토요일 아침에는 부활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음식 (케이크, 빵, 고기, 달걀, 버터, 등)을 예쁜 바구니에 담아서 신부님께 축복받는 전례가 따로 있는데요, 저희 본당은 워낙 신자수가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한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매 30분 간격으로 열세번이나 이 전례가 이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 성야! 저녁 8시 반에 시작한 미사는 일곱 개의 독서와 화답송을 모두 바치고, 영성체 후에 성체 거동이 있었기에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성가대는 천상의 소리라고 느낄 만큼 아름다운 전례를 준비해 부활의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전례는 바로 영성체 후의 성체 행렬(Eucharistic Procession)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성체를 모시고 앞장서서 밖으로 나가시고 신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르며 성당 마당을 세 바퀴정도 돌았는데요. 이 때 성당의 모든 종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신자들은 성가대와 함께 부활 성가를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부활초에서 당겨진 촛불을 들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토록 부활의 기쁨을 크게 체험했던 날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 때의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저만 간직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아름다운 전례를 조금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3월 말에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3만명에 가까웠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만 명이 넘는 정도이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은 하루 7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폴란드로 떠나오기 전에 저에게 폴란드에 안 가면 안 되겠냐는 말씀들도 주변에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쁘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를 피정 때 만나주신 게쎄마니의 예수님입니다. 고통 받는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듯이, 지금 더 고통 중에 있는 폴란드의 제 가족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후원회 여러분을 위해 폴란드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기도 중에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나눔지로 기도를 부탁했었던 저희 아버지를 위한 기도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마리아”의 전교자들 !

고지은 크리스티나.FMM

수도 성소를 갈망하며 수녀원을 찾던 때. 부산 양정 수녀원으로 향하는 제법 긴 오르막을 걸으면서도 입가에는 연신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었다. 소박하고 정감 있는 수녀원 건물, 따뜻하고 활기차게 맞아주는 수녀님들, 두 끼 같은 한 끼를 먹고 올 만큼 너무 맛있는 식사까지. 다만, 살짝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수녀회 이름이었다!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이 길기도 긴 이름은 그렇다 쳐도 왜 “마리아의 전교자”일까? 예수님의 전교자? 아니면 하느님의 사도가 아니고?

“**이제 사랑하는 딸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신 우리 성소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몇 마디 드리게 해주십시오. 마리아의 전교자라는 뜻은, 이 지상에서 그들의 어머니의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마리아의 활동이었습니까? 마리아께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세상 구원[에 협력]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삶을 다시 이 세상에 재현하십시오!**”

(1877년, 마리 드 라 빠시옹이 쓴 공식회랑에서)

이름은 각자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때로 고유한 소명이 숨겨져 있다. 이름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외적인 표시다. 성경은 이 이름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창세기 1장을 펼치면 하느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모든 존재를 “생겨나게” 하시고, 이름을 지어 “불러주신 것”인데, 그것이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신다. 빛이 낮과 밤이라는 이름으로, 물이 갈라져 하늘과 땅이라는 이름대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이는 사람이라고 불리며 고유하게 존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성모성월인 5월이 다가오니 문득, 창립자가 설명한 “마리아의 전교자들”이라는 이름에 얼마만큼 동화되어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된다. 지금은 우리 수도회 성소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평신도분들도 많이 계신다. 수녀원에서, 사도직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학교, 저마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을 살아가는 것일까?

창문 너머,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지신 수녀님이 마당에서 묵주기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큰 활동은 못 하시지만, 하루에도 몇 번, 수녀님의 오래된 묵주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사연이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올려지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이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꽃 헌화(獻花)는 아닐까? 미사 참여가 제한되면서 전례를 통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가 바치는 헌시(獻詩)가 되고, 마스크를 썼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무언의 미소를 건네는 것이 성모님께 바치는 고운 노래가 된다.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는 이들의 몸짓과 발걸음이 성모님께 보여드리는 멋진 춤이 아닐까? 하루를 마감하는 성찰의 시간에 일상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기도할 때, 하느님께 전해달라고 성모님께 건네드리는 애틋한 편지가 아닐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성모님의 활동을 계속하며 그분의 삶을 재현하는 마리아의 전교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우리에겐 매월이러 성모성월이다. 일상에서 바치는 기쁨과 한숨, 희망과 믿음, 사랑과 용서, 인내와 희생으로 한 알 한 알 얹은 인생의 묵주를 먼 훗날,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 그 거룩한 이름!

글라라의 집

빠알간 영산홍이 동네방네 불난 듯 곳곳을 물들이는 5월, 가정의 달이자 성모님의 달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어머니이자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성모님을 두고 거룩한 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랑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은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중 신앙과 덕행이 탁월한 이들을 기려 ‘성인(聖人)’이라 선포합니다.



여기, 성모님을 닮은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들을 더 염려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의 공식 인준은 없지만, 이분들을 감히 ‘거룩한’ 분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노인요양원 ‘글라라의 집’에 계신 어르신들과 그 직원들입니다.

글라라의 집 역사는 약 3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1991년, 가락동 성당 주임이셨던 김병도 신부님께서(2001년 몬시뇰에 서임되셨고 지난 3월 24일 돌아가심) 광명시에 다세대 주택을 얻어 할머니들 몇 분을 모셨습니다. 이때 저희 수녀님 두 분이 출퇴근하면서 이분들을 돌보아드렸습니다. 1992년 11월 30일 신부님은 글라라의 집을 축복하고 그 운영을 우리 수녀회에 맡기셨습니다. 할머니들 5분을 모시고 시작한 ‘글라라의 집’은 이제 정원 57명, 직원 45명(요양보호사 25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4명, 조리원 4명, 위생원 2명, 그 외.)이라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사연을 좀 더 듣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은주 사무국장님, 이종희 발비나 수녀님, 그리고 정은희 안젤라 수녀님입니다.

질문자: 무엇보다도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가 궁금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이종희 수녀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소외감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면회가 금지되어 가족이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저 가족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다.

질문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지은주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영상통화나 비접촉 면회 등 여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상을 찍은 사진을 보호자들께 보낸다든가, 반대로 보호자들의 최근 사진을 어르신들께 보여드리는 등,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글라라의 집’ 뒤편에서 바람을 쐬거나 인근 저수지나 공원에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요. 외부 나들이는 차안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만, 그나마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외부 인력이 출입하지 못하니 프로그램 강사들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충원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도 더 세심하게 살피려고 간호사와 조리사도 충원했습니다. 당장은 이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우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질문자: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 업무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은주 국장님: 네, 다른 요양원에 비해 저희가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습니다. 2015년과 2018년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질문자: 내친김에 ‘글라라의 집’ 사랑을 좀 더 하신다면? 다른 요양원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종희 수녀님: 대부분 요양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 입소를 꺼려합니다. 영리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희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더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 수녀회 정신을 따라 하느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은주 국장님: 평가나 견학 오시는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곳에 비해, 저희 글라라의 집이 가족 같은 분위기이고, 서비스가 정성스럽고 냄새나 청결 등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칭찬이 많습니다. 어르신들께 존댓말을 사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배어 있습니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전체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수녀님들, 쑥스러워하심. ^^)

정은희 수녀님: 사실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합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번은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휠체어로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거실로 나가시도록 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면 욕창도 쉽게 생기고 우울감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이런 정성으로 돌보시면 보호자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겠네요.

정은희 수녀님: 네, 그렇기도 한데, 간혹 관심이 없는 보호자도 계세요. 어떤 보호자는 본인이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119를 불러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정작 보호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병원 동행을 보호자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거나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이종희 수녀님: 젊었을 때는 이분들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분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식사나 대소변처리 같은 기본적인 것도 혼자 못하시고 얘기처럼 되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에게 의존하고 얘기처럼 되어도, 어르신은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딜 모시고 가면, “어디로 가십니다. 식사하러 가십니다.”하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도록 기다려 드리고, 천천히 원하시는 만큼 씹고 삼킬 수 있도록 식사수발을 듭니다.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것처럼 우리도 어르신들을 소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녀님들과 국장님의 잔잔한 미소를 보면서 문득 우리 수도회 창립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본회의 모든 자매들이 자신을 성모성월 신심 실천에 영원히 봉헌된 사람으로 여기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매년 자신들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닮으려 애쓰면서 성모성월을 긴 피정처럼 보내는 이들은 이 지상에서는 참된 거룩함을, 천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얻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돌려드리는 거룩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대담: ‘글라라의 집’ 지은주 사무국장님, 이종희 발비나 수녀님, 정은희 안젤라 수녀님
정리: 이영주 스텔라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3월 1일 ~ 4월 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검단성당	고대완
검암동빈첸시오	고대완	고월순	고은하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창용	공해용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현루가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샛별	김성용	김성원
김순철	김시윤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순	김영운	김영준
김옥림	김옥주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잔디	김재식	김정매(박치현)		김정숙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정주	
김정혜(정구충)	김정화	김종연	김주영	김주옥	김주희	김준희	김지혜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욱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현희	김혜겸
김호송	김홍양	김화자	김효수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근
노병덕(권정희)	노석심	노연주	노정애	당효준	명영희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박규성(정현정)	박금난	박기선	박노성	박라희(임영희)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성현	
박성길(정은아)	박성준도미니꼬		박소진	박수경	박수인	박순옥	박양순	박원서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해필	박화자	박회수	박효정	박희순	방웅	방진	배미정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빈창숙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덕순	서태진
서혜석	석상령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윤희	손은주
송순이	송순이(화령)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신동규	신승일
신재진	신주선(신유경)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안지현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보	오숙자	오승훈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우병숙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ENG(김진식)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시연
유은분	유은정	유주영	유춘성	유혜정혜례나	유회숙프란치스	육동배	윤경숙	윤구자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데보라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정희	윤한희
이갑수	이강모	이경석	이관훈	이광진(홍기원)	이광희	이귀순	이기향	이기혁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성엽	이성혜(유주영)		이성호(조봉례)	이연실	이영미	이영복	이영애	이영혜
이요셉조마리아	이용길		이윤신	이윤옥	이은미	이은주	이인권	이인동
이임수(송재용)	이재훈		이정란(최윤)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소피아		이종옥	이준우	이지인프란체스카	이창석	이태금	이필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임도원(임영희)	임승욱	임윤섭	임정태
임지원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영표	장원태	장현아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동락	정미영	정미화	정민정	정부강
정수인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인순	정재영	정재훈(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국제	조근미	조남섭	조명숙	조상위	조석금
조정희	조중혁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주)전방재엔지니어링	지정희
진선순	진성자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선애	최성순
최순애	최연희	최영숙	최영호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인석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최휘선	추상식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규영	한기훈	한순옥	한영미	한옥선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순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홍승희	홍은숙